

## 20241122 설교자 회의(이기영 목사)

### 1. 본문: 에스더 7:1~10절

제목: 반전의 반전

대지 1. 이런 일을 계획한 자

2. 이런 일을 계획한 하나님

한줄 요약 “하만이 계획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에  
반전에 반전이 있다.”

연구

오늘 본문에서 에스더가 베푼 잔치 날 술을 마실 때, 아하수어로 왕은 에스더에게 네가 원하는 것이 나라의 절반이라면 그것까지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간구는 자신과 자신의 민족을 살려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첫 번째 반전은 5절입니다. “아하수어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한글 성경은 “아하수어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일러 가로되”라고 한 번에 말한 것처럼 보이지만 히브리어 본문을 직역하면 ‘그리고 아하수어로 왕이 말했다. 그리고 그가 왕후 에스더에게 말했다’로 번역할 수 있다. 성경을 기록할 때의 특성상 두 번 반복했다는 의미는 오류나 실수가 아니라 지금 아하수어로 왕이 기가 막혀 하며 숨을 고르면서 두 번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고 주석은 말한다.

하만은 아하수어로 왕에게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새로운 법령의 조서를 내립니다. 하만은 이 일을 통해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계획을 한 것이고, 아하수어로 왕은 직간접으로 그 계획에 동참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수어로 왕은 에스더의 이 말을 듣고 자신은 전혀 모르는 사실처럼 이런 일을 계획한 자에 대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반전은 철저하게 준비되었던 하만의 계획이 들통나 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반전은 9절에서 일어납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개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오십 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라고 말합니다.

8절에서 하만은 자신의 목숨을 구명하고자 에스더에게 엎드렸지만, 오히려 이런 그의 행동이 아하수어로의 심기를 더욱 건드려 죽음에 이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만의 얼굴을 찡그린 표현은 이미 그가 사형은 언도받은 것과 같은 상태이며, 그의 죽음은 기정사실화 된 것입니다. 다만 그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만 남았는데, 이때 9절에서 하만이 모르드개를 죽이려고 준비한 나무에 자신이 달리게 된 것이 두 번째 반전인 것입니다.

에스더서에서 문제의 시작은 모르드개가 하만에게 엎드리지 않음으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데 놀라운 것은 하만은 에스더 앞에 엎드렸다가 오히려 화를 불러 일으켜 그가 자신이 준비한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당시 법에 따르면 ‘신하는 왕후에게 일곱 걸음 안으로 가까이 다가와서는 안된다’고 법으로 정해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만은 급한 나머지 자신의 목숨을 구명하려고 했던 행동이 오히려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동이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증거를 에스더 안에서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편에서 시인의 고백을 통해 이 일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시편 9:15-16절을 보시면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음이여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엮혔도다**” 포로 시대에 다니엘처럼 많은 어려움 속에서 기적적인 일들을 통하여, 다니엘을 구원하신 모습은 등장하지 않고 사람들의 ‘암투’가 드러나는 에스더지만 그 역시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에스더와 유대인들 처럼 사망의 골짜기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상황과 환경에 놓여도 주님의 막대기와 팔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고 계심을 믿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 2. 본문: 요한복음 1:1~14절

제목: 나는 구세주다

대지 1. 말씀이셨고, 빛으로 오심

2. 깨닫기 못하고, 알지 못함

한줄 요약 “태초에 나는 말씀이었고, 이 땅에 빛으로 왔지만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했고 알지 못했지만 나는 구세주다.”

### 연구

정경 중에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하는 책은 ‘요한복음과 창세기’뿐이라고 주석은 밝힙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아는 요한이 이 문구로 요한복음을 시작함으로써 독자들이 창세기, 특히 천지창조이야기의 첫 부분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끔 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문구는 창세기의 첫(옛) 창조 이야기를 소개하며, 이것에서는 새(재)창조 이야기로 연결되게 한 것이라고 주석은 해석합니다. 이렇게 ‘태초에’라는 단어를 통해 독자들의 관심을 옛적에 하나님이 이루신 첫 창조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이루실 새 창조 이야기로 옮기는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1:1절에 보면 성자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존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함께’ 계신 인격 간의 관계를 가리키지만 그 다음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태초에’ 우주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 확인하고 있으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하고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으로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임을 알려줍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죄악에 빠진 자들을 구원할 구세주로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지으신 분이므로 소개하고 있으며, 그런 분이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

하는데, 이는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사람들을 위한 빛’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다른 어떤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들을 구원할 구세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길ियो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 안에 거할 때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둠에 갇혀 나올 길을 찾지 못하던 자들에게 빛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예수가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로 왔음에도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비밀 작전을 펼치듯이 조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신 것이 아님에도 사람들은 모릅니다.

마태복음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몰랐다가보다는 거부했다는 표현이 맞을 만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환대받지 못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세상 사람들이 오시길 기다리는 메시아는 다른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1장의 내용을 통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실과 오셨음에도 그분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는 현실을 드러내고 있으며, 그분은 참 하나님인 동시에,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요한복음 20:30~31절에서 언급하듯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앞으로 살펴볼 요한복음을 통해 그분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며, 요한의 눈에 비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묵상하고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닫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 3. 본문: 요한복음 6:9~14절

제목: 예수를 따르는 이유

대지 1. 표적을 본 까닭이냐?

2. 먹고 배부른 까닭이야?

한줄 요약 “예수를 따르는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냐? 먹고 배부른 까닭이냐?”

연구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 기적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많은 이들을 살리실 것의 예표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도 전체적인 내용은 비슷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지만 15절을 보면 다른 공관복음서에서는 볼 수 없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관복음서에도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셨다고 기록은 되어 있지만, 그 이유까지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언급한 곳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26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예수만 옆에 있으면,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더 이상 배고픔 일이 없겠다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나를 찾아오고 나를 따르고 있는 거 아니냐는 예수님의 지적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소망이 없는 자들을 위해 낮고 천한 자리로 오셨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길이 생겼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오로지 인간은 자신들의 소원과 기대를 충족시킬 수단과 방편으로만 예수를 찾고 따라다니는 것이다.’라며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을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백성들이 먹었던 양식처럼 찢기셔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예수님 사역의 핵심과도 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이 원하는 왕,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왕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인간의 끊임없는 탐욕은 하나님이 빛으로 오셨음에도 탐욕에 눈이 어두워 그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더듬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 모습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은혜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하지만 우리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믿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신의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시겠다고 보여주시는 자리에서조차 자신의 탐욕에 눈이 어두워진 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자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임을 기억하시고 그런 우리들에게 허락된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 4. 본문: 요한복음 16:25~33절

제목: 믿음과 현실

대지 1. 흠여지나

2.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한줄 요약 **“제자들은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믿음의 결단과 다짐을 했지만 아직 세상의 핍박 앞에 흠여질 수밖에 없는 믿음이 현실이다.”**

연구

14장부터 ‘자신이 죽을 것’과 후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게 될 것’이라는 말씀과 ‘포도나무 비유’로 구원에 대해 말씀하셨고, 17장에서 기도하시고 18장에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 잡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는 본문이 오늘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풀어주자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은 줄 아니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주석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모두 진리가 밝혀졌다고 생각하며 흥분하여 그들의 신앙을 고백했다’고 해석합니다. 그들은 16~17절만해도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도무지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30절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마치 마태복음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그리할 수 없습니다”고 만류해보지만 오히려 예수님께 혼이 났던 것처럼, 예수님은 31절에서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믿느냐 안믿느냐를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책망의 뉘앙스’를 띄고 있는 질문입니다.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믿음이 생겼느냐”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알게 되었지만, 그 믿음도 온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32절에 보면 ‘수난이 왔을 때 지금 너희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흔들릴 것이며 모두 놀라 흩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질문이 매우 예리한 질문인 것’입니다.

이렇듯 제자들의 믿음이 아직 연약합니다. 그러나 보혜사가 오시면 예수를 아는 지식의 충만함에 이르게 될 것이며, 그들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장에서 이 책을 쓰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나 이제 생겨난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아내기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환난을 당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바울도 그리스도의 사도로써 받은 모든 고난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고 고백하기도 하였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어려움과 환난이 나를 비켜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은 우리를 고난의 한 복판으로 이끌고 나아갑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담대할 수 있는 근거는 “고난 중에 인내를 배우며, 소망을 갖게 되며, 장래의 영광이 현재의 고난에 비교할 수 없다는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해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에 그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의 승리가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동일하게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을 세상에서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알면 알수록 은혜를 경험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며, 세상에서도 담대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